

### 박경옥 첼로 독주회 19일 금호아트홀



첼리스트 박경옥 한양대 교수가 오는 19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독주회를 갖는다.

서울예고와 서울대학교 음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박 교수는 독일 국립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데트몰트 국립음대에서 수학 후 미국 예일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이화경향, 중앙, 동아공쿠르 등 국내 공쿠르 뿐만 아니라 오사카 국제 실내악 공쿠르 등 유수 공쿠르에서 입상했다. 일본 키리시마 국제음악제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며, 오스트리아 브람스 국제음악콩쿨의 심사위원

으로 활동하고 있다.

첫 곡은 김성기의 첼로 솔로곡인 '노스텔지아'이다. 이어 데트몰트 국립음대 교수로 재직중인 피아니스트 야콥 로이시너와 브람스의 첼로 소나타 1번과 2번을 들려준다.

한편 금호아트홀은 '조명희와 이승원이 함께 하는 비올라의 계보'(4월2일), '허원숙 피아노 독주회'(4월7일), '광주시립교향악단과 함께하는 실내악 콘서트'(4월24일), '트리오 제이드 콘서트'(4월27일)를 준비 중이다.

티켓 가격 2만원, 청소년 1만원. 문의 062-360-843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12일부터 광주극장에 가야 하는 이유

디지털 버전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상영

14일 '갓 헬프 더 걸' + '센치한 버스' 콘서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대표작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 12일부터 광주극장에서 상영된다.

애니메이션 최초로 제52회 베를린 영화제 황금곰상을 수상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은 제75회 아카데미 장편애니메이션 작품상, 제25회 일본 아카데미상 최우수 작품상, 제68회 뉴욕비평가협회상 수상 등 전 세계 51개 영화제에서 수상했다.

돼지로 변한 부모를 구하고 잃어버린 이름을 되찾기 위해 소녀 치히로가 벌이는 모험담을 그린 작품으로 히사이시 조의 아름다운 음악도 인상적이다.

지난 2002년 국내 개봉 당시 흥행에 성공했던 작품으로 13년 만에 디지털 리마스터링 버전이 재개봉한다.

14일 오후 3시에는 영화와 콘서트를 함께 볼 수 있는 행사도 마련된다.

음악을 통한 소녀의 성장담을 그린 경쾌한 영국 음악영화 '갓 헬프 더 걸' 상영 후 '센치한 버스(SENCHIHAN BUS)' 공연이 광주극장 뒤 영화의 집에서 열린다.

최근 1집 음반 '19.9'를 발표한 '센치한 버스'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4인조 어쿠스틱 밴드다. 영화·공연 동시 관람 8000원. 문의 062-224-5858 네이버카페 <http://cafe.naver.com/cinemagwangju>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광주비엔날레는 나를 성장케 한 원동력”

이매리 작가 '제56회 베니스 비엔날레 특별전' 초청

50여개 국 민족詩 낭송 사운드 시각화 작품  
중국 젠다이 그룹 공식 후원...그리스 전시도

1895년 세계 최초로 시작돼 2년 마다 이탈리아에서 열리고 있는 '베니스 비엔날레'는 작가라면 누구나 꿈꾸는 미술 전람회다. 베니스 비엔날레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고 영향력 있는 미술 행사로 인정받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베니스 비엔날레 기간에는 세계 미술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전세계에서 문화예술계는 정치, 경제, 사회 유명 인사들의 발걸음이 이어진다.

광주 출신 '하이힐 작가' 이매리씨가 오는 5월9일 개막하는 '2015년 제 56회 베니스 비엔날레 특별전'에 참가한다. 이씨는 앞서 그리스 국립현대미술관과 아테네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이씨는 중국 상하이 히말라야 미술관의 공식 초청으로 오는 5월7일부터 11월31일까지 베니스 산 마르코 광장과 리알토 다리 사이에 있는 '팔라조 카 파카논'(Palazzo Ca Paccanoon)에서 작품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 전시는 중국 젠다이 그룹이 공식 후원한다.

전시 기획은 광주시립미술관과도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는 히말라야 뮤지엄의 왕순킷(WONG Shun-Kit) 관장이 맡았다. 그는 2001~2003 베니스 비엔날레 홍콩관 부의장, 홍콩예술발전위원회의 시각예술위원회 의장 등을 역임했고 2011년 베니스 비엔날레 홍콩관을 기획하기도 했다.

이씨는 “광주비엔날레가 오늘날 저를 이만큼 성장 시키는 원동력이 됐다”며 “후배 작가들이 광주비엔날레를 통해 세계적인 작가로 성장했으면 한다”고 짧은 소감을 밝혔다.

이씨는 'Humanistic Nature and Society(shan-shui, 山水)'를 주제로 미디어 작품 2점을 선보일 계획이다. 그동안 하이힐 등 신발을 하나의 텍스트로 활용한 작품에 놓여왔던 이씨는 이번에는 신발을 언어로 대체하면서 추상화시켰다.

특히 이씨는 베니스 비엔날레 출판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 광주국제교류센터의 도움을 받아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세계 50여 개 국 사람들과 만났다. 'Harmonious Shan-Shui(Land Landscape) from Variety'는 세계 50여 개 국 민족 언어로 된 민족시를 낭송한 사운드 파장을 시각화한 미디어 작품이다. '민족은 시를 낳고 시는 민족을 키운다'(The people Bears Poet, The Poet Bring up people)는 메시지를 담은 작품으로 50개의 스피커, 마이크, 엠프, 싱글채널 비디오를 활용해 각국의 민족시를 들려주고, 보여준다.

함께 선보이는 'Where do we come from and where are we heading to?'는 정치 권력과 자본으로 형성된 도시의 풍경과 자연파괴에 대한 인간과 성찰을 다룬 30분 분량의 비디오 작품이다.

이씨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전시를 준비하면서 많은 것들을 쏟아부었다”며 “5~6년 동안 해야 할 것들을 짧은 시간 동안 준비하면서 작가로서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베니스 비엔날레가 중요한 전시이기는 하지만 모든 전시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도 작가로 성장해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작업을 통해 예술가다운 삶을 사는



베니스 비엔날레에 참여하는 이매리 작가는 50여개국 민족시를 낭송하는 소리를 미디어 작품으로 시각화할 계획이다.

작가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오는 25일부터 11월까지 그리스 크리에타 국립현대미술관과 아테네 사립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연다. 이씨는 재능 총이로 만든 하얀 구두 500여점을 일렬 또는 나선형, 동심원 등으로 설치하는 '침묵 속으로' 시리즈를 선보인다. 작품

안에 각국의 인문학적 사유를 함께 담을 계획이다. 그는 지난해 국회의사당 의원 회관에서 열린 'On the Road to Wisdom'전에서 인문학적 여정을 통해 의미를 확장한 하이힐 시리즈로 주목받기도 했다.

/글·사진=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윤세영 작 '우리 다시 시작할래'

봄을 여는 릴레이 점핑

20~40대 작가 24인 작품전

갤러리 리체 10~23일

4월 14~26일 양림미술관

갤러리 리체가 광주 출신의 젊은 작가들의 전시로 봄을 연다.

10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는 '점 : 팽(Jumping)'을 주제로 지역 출신의 20~40대 작가 24명의 작품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다음달 14일부터 26일까지 양림미술관에서 이어진다.

갤러리 리체는 젊은 작가들을 발굴하기 위해 해마다 '점 : 팽'을 주제로 전시를 열고 있다.

강동호, 김동아, 김혁, 박성원, 엄기준, 윤세영, 장용훈, 이선희, 최미영, 홍원철 등 작가들은 기존의 관습과 제도, 전통관념 등을 자신들만의 참신한 시각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선보인다.

엄기준은 '겨울 그리고 여름'을 통해 인간들의 무분별한 자연파괴와 환경오염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지구에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박지현은 나무판을 파내고 채색해 우리 주변의 서정적인 풍경을 담아낸다.

노여운은 사라져가는 풍경에 대한 기억을 끄집어내 화폭에 기록했으며, 오관영은 수채 물감과 물로 겨울 풍경을 그렸다. 문의 062-412-0005.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이태리 가구 40% OFF SALE**

www.hong79.com(홍친구닷컴)   신상품 다량 포함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로터리 58-15(동구청옆) 가구빌딩   ☎ 1899-0240   이태리가구 직수입 판매   3월 19일까지